

## 40-50대 직장인의 노후준비와 자산보유 유형

김향숙·박명숙<sup>1)\*</sup>

동국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동국대학교 사범교육대학 가정교육과<sup>1)</sup>

### Differences in Retirement Preparation and Asset Type in the Elderly Life of Employees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Kim, Hyang Sook · Park, Myung Sook<sup>1)\*</sup>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Gyeongju<sup>1)</sup>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in retirement preparation and asset type in the elderly life of employees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Retirement preparation showed a score of 3.30, and the emotional preparation dimension of retirement preparations showed a slightly higher score. The retention of guarantee assets (insurance and, national pension) scored higher than other types of assets.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preparation and the type of asset retention. According to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economic preparation, monthly income, home ownership, and the education level had significant effects on assets retention,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independent variables was 39.7%.

Key words: retirement preparation, asset type

#### I. 서론

Statistics Korea(2013) 조사에 의하면 2012년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은 남자 77.95세, 여자 84.64세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기대수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은퇴 후 긴 기간을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어야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를 대비한 노후준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은퇴 후 노후의 안정된 삶을 위해 국가 차원의 공적 연금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의 삶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사회보장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안정된 노후의 삶을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후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지식과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조기퇴직 등은 노후의 삶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Park 2008; Bae 2011).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 미흡은 경제적 문제뿐

접수일: 2015년 2월 15일 심사일: 2015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5년 2월 18일

\*Corresponding Author: Park, Myung Sook Tel: 82-10-5705-9673

e-mail: pms@dongguk.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만 아니라 이로 인한 건강문제, 정서적 문제까지 수반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노후의 삶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Statistics Korea(2009)가 실시한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노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27.6년을 더 산다고 가정 하였을 때, 노후의 최소 수준의 생활비는 월 평균148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3억 6000만원의 금액이 노후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은퇴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은퇴자금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0-50대 은퇴이전 부부가계를 대상으로 은퇴준비의 충분성 정도를 조사한 Yuh et al. (2007)의 연구는 응답자의 66%가 주관적으로 은퇴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금융복지 조사보고서(Statistics Korea 2013)에서도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경우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은 ‘잘 된 가구’는 9.0%인 반면 ‘잘 되지 않은 가구’와 ‘전혀 준비 안된 가구’가 각각 34.3%, 20.8%로 준비 되지 않은 가구 비율이 훨씬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가계부채와 관련된 보도자료(New Daily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137%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소비(혹은 저축)가 아닌 빚을 갚는데 쓴다는 의미로, 보다 심각하게 생각되는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처분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계의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계의 생활목표를 효과 있게 성취해 나가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노후준비 정도와 자산보유 상황을 점검하고 노후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모색은 의미 있다고 하겠다. 노후를 대비한 준비는 단기간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에서 노년기라는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40-50대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노후준비 정도와 자산보유 유형을 살펴보고, 자산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후준비(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준비)와 자산보유 유형의 일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와 자산보유 유형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노후준비와 자산보유 유형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자산보유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영역

40-50대는 사회활동의 중심을 이루는 연령집단 이면서 동시에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 세대로서 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하며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Kang & Ha 2013). 특히 이 시기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며 은퇴준비를 하고 노후에 대하여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과업을 가지고 있다. 노후준비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여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Park 2008).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9.0%,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61.1%로 나타나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노후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Statistics Korea 2013).

노후준비는 공적영역인 공적연금제도와 같은 국가가 담당할 부분도 있으나,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노년기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경제적 준비와 함께 신체적·정서적인 차원에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Kang 2005).노후보장패널조사에 의한 노후생활의 가장 큰 고민은 건강관련이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노년기의 예상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후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노후에 대한 계획적인 준비는 노후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변화될 삶에 대한 적응과 통제를 돕게 하여 현재의 삶 뿐 아니라 노년기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최근 노후준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Kang 2005; Kim & Choi 2010; Bae 2011; Kim 2013), 경제적인 노후준비뿐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노후준비를 고려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Ahn et al. 2009; Kim et al. 2012).

먼저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령화의 증가로 인하여 소득의 상실 후 보통 20-30년을 생활해야 하는 노년기에는 경제적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노인에게 경제력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심리적 안정감, 여가생활 등의 생활전반과 관련이 있다(Shin 2002; Park 2008). 노후생활에 있어서 경제력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서 기본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활동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 된다. 또한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켜 줌으로써 안락한 노년기의 삶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므로,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노년기에는 퇴직, 배우자 사별, 자녀의 독립, 지인의 죽음 등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면서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며 우울 등의 정서적 특징이 나타난다(Na 2004). 이러한 노년기의 정서적 변화는 노인에게 정신적 불안정, 고독감을 초래하며 노후생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서적 노후준비가 필요하다(Kim et al. 2012). 노년기를 보다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원만한 사회관계망 유지와 긍정적인 생활태도로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노년기 이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Kang 2005). 가족과 친지, 친구와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유지하고 여가활동 및 교육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상실된 부분을 대치할만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 노년기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 노후준비는 보다 건강한 노후시기를 보내기 위해 평소 건강 유지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2011)가 실시한 고령화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 건강(60.7%)이 노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건강을 잃게 되는

것(90.1%)이 노후생활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노인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는 활동을 제한하게 하고, 운동과 사회참여를 감소시키도록 작용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Lee 2009). 신체적 문제는 노동력의 상실을 동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활동의 감소,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다양한 노후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Choo 2000). 신체적 노화 자체를 피할 수는 없으나 노화의 정도와 유지 및 관리는 개인의 평소생활 노력에 따라 조절되는 것이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년기 이전부터 신체적 노후준비가 행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노년기 이전부터 생활전반에 걸쳐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활동 및 경제수준, 주택소유, 건강상태 등의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영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ang 2005; Park 2008; Ahn et al. 2009; Lee 2009; Kang & Ha 2013).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에서 노년기라는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40-50대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영역에서의 노후준비 정도를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영역별 노후준비의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 2. 노후를 대비한 자산보유 유형

노후를 대비하여 운용되는 자산은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노년시기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노년기 이전부터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느냐의 문제는 연장되는 노년시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Jeong & Lee 2010). Statistics Korea (2013)가 1990-2010년 동안 패널 조사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및 변화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녀들의 취업이나 결혼으로 분가한 빈 등지기에 해당하는 노부부들의 생활비 원천은 ‘본인스스로 마련’하는 경우가 39.1%로 가장 높고, 예금, 적금이 4.5%, 공적연금(국민, 사학 연금 등) 7.3%, 개인연금(은행, 보험 등) 1.5%, 부동산 2.6%, 주식·채권·펀드는 0%로 나타났다.

노후를 대비한 자산 유형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보험, 국민연금, 개인연금, 은행적금, 은행예금, 주식·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관리 방안을 중복적으로 사용해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노후 대비 자산관리 방법으로 타당한지를 제시하고 있다. Yuh et al.(2007)은 은퇴자 가계들의 노후대비 경제수단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예금 및 저축, 부동산, 보험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2007)에서는 가계의 주요 노후대비수단이 국민연금, 개인연금, 부동산, 보험, 은행예금 및 적금, 주식이나 채권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Statistics Korea(2009)의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한 조사에서는 40대의 경우 국민연금, 개인연금, 예금·적금, 기타 공적연금, 부동산 순으로, 50대의 경우 국민연금, 예금, 적금, 사적연금, 부동산, 공적연금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에 상관없이 노후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과 금융자산인 예금, 적금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노후준비 방법으로 부동산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선호도 문제라기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산보유 유형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국민연금, 은행 저축, 주식·채권, 부동산 등을 특성에 따라 크게 보장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보장자산은 노후의 삶을 경제적으로 보장해주고 재정적인 안정을 주며,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노후의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 보험(생명보험, 간병보험 등), 국민연금, 개인연금이 포함된다. 보험에 대한 보유는 40대 이후부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보고된다(Baeg 2008). 국민연금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유비율은 높게 나타나나, 노후 재무영역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7). 국민연금이 노후대책의 주된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자산은 OECD권고기준인 70-80%보다 낮은 45-55%수준으로 노후대비 자산으로서의 역

할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Ko 2011). 개인연금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보유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보유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ng et al. 2009).

금융자산은 비교적 현금으로 유동이 빠른 자산을 말하며, 은행적금이나 은행예금, 주식·채권·펀드가 포함된다. 금융자산의 비중은 위험한 투자자산보다 은행적금이나 예금과 같은 안전한 금융자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보유액과 구성비가 증가하다가 소득이 감소하는 시점부터는 보유액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aeg 2008). 상대적으로 위험한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채권·펀드의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보유액과 구성비가 큰 반면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Yuh et al. 2007).

실물자산은 자산의 안정과 가치를 증대시켜 줄 수 있는 부동산 보유로 인해 생기는 자산으로, 가정생활주기에서 노년기에는 다른 형태의 자산에 비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은 연령의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40대에 비해 50대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Yuh et al. 2007),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남성이 실물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aeg 2008).

40-50대의 자산보유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미래 노후시기 소득의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노후를 위하여 적절한 노후 소득 창출 방안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로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11년 6월 20-29일에 직장인 50명을 임의표집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의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7월 11-17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40-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

업체(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총 300부가 회수되었고 부실응답 했다고 판단된 20부를 제외한 280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 1)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역, 교육수준, 종교, 주거소유여부, 취업형태, 자녀의 수, 맞벌이 여부, 월평균소득, 부채 여부, 경제적 형편, 생활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노후준비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관련 연구(Ahn et al. 2009; Kim et al. 2010)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준비의 세 영역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 준비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자산보유 유형

자산보유 유형은 보장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의 보유 여부를 ‘예(1)’와 ‘아니오(0)’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장자산은 보험(생명, 간병보험 등), 국민연금(공적연금), 개인연금을, 금융자산은 은행적금, 은행예금, 주식·채권·펀드를, 실물자산은 부동산을 의미한다.

척도의 타당도는 소비자학을 전공하는 교수와 대학원생 4인이 안면타당도를 실시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coefficients

	Variables	# of items	Cronbach's $\alpha$
Retirement preparation	Economic preparation	4	.847
	Physical preparation	4	.743
	Emotional preparation	4	.758

## 2. 조사대상 및 자료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남성(51.4%)이, 연령은 50대(52.5%)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기술직(48.2%)이, 교육수준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bjects(N=280)

Variables		N(%)	Variables		N(%)
Gender	male	144(51.4)	Age	Forties	133(47.5)
	female	136(48.6)		Fifties	147(52.5)
Occupation	Specialized job	68(24.3)	Education	<High school	85(30.4)
	Office job	135(48.2)		University	166(59.3)
	Service job	77(27.5)		>=Graduate school	29(10.4)
Number of children	None	7( 2.5)	Religion	Yes	184(61.3)
	1	57(20.4)		No	116(38.7)
	2	179(63.9)	Home ownership	Yes	196(70.0)
	3>=	37(13.2)		No	84(30.0)
Employment	Regular	223(79.6)	Economic background	Low	99(35.4)
	Irregular	57(20.4)		Moderate	147(52.5)
Monthly income	<KRW 3 million	53(18.9)		High	34(12.1)
	KRW 3-5 million	128(45.7)	Debt	Yes	182(65.0)
	>KRW 5 million	99(35.4)		No	98(35.0)
Dual-income household	Yes	164(58.6)	Subjective health condition	Low	43(15.4)
	No	116(41.4)		Moderate	140(50.0)
Life satisfaction	Low	67(23.9)		High	97(34.6)
	Moderate	141(50.4)			
	High	72(25.7)			

은 대학교 졸업(59.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특성과 노후준비에 따른 자산보유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산보유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노후준비와 자산보유 유형의 일반적 수준

노후준비 정도의 일반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준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자산보유 유형의 일반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장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의 보유여부를 중복 응답 가능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인 노후준비 정도는 3.30점(5점 만점)으로 보통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영역별로는 경제적 준비 3.22점, 신체적 준비 3.28점, 정서적 준비 3.40점으로, 정서적 준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산보유 유형의 일반적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보장자산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국민연금은 71.4%, 보험은 71.1%의 높은 보유율을 보인 반면, 개인연금은 38.9%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보유여부를 살펴본 결과 은행예금은 40.7%, 은행적금은 35.0%, 주식·채권·펀드는 35.4%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자산의 경우 부동산을 보유한 응답자는 34.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에 비해 보장자산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장자산 중 보험 보유율이 71.1%로 높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노후준비를 위한 자산 유형으로 국민연금 다음으로 은행 예금과 적금(Yuh et al. 2007), 개인연금(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7)이 우선 순위를 차지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나, 40대 이후부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보험 보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Baeg(2008)의 연구결과와는 같은 맥락에서 설명가능하다. 이러한 보험 보유율의 증가 추세는 그동안 보험 상품이 저축형, 보장형, 연금형 등 다양성을

Table 3. General level of retirement preparation

	Variables	M(SD)
Economic preparation	1. I am often looking to reevaluate total assets and prepare for the retirement of the current household.	3.22(0.94)
	2. I have been studying how to take advantage of the retirement pension.	3.12(0.91)
	3. I try very hard to search information about savings and investment for a comfortable life during my retirement.	3.10(0.88)
	4. I pay attention to health care to reduce retirement medical costs.	3.44(0.84)
	Total	3.22(0.74)
Physical preparation	1. I regulates food intake for a healthy aging life.	3.22(0.81)
	2. I regularly (every time I need to) get a medical checkup.	3.29(0.85)
	3. I manage the body by exercising for healthy living.	3.27(0.81)
	4. I have a regular life for health.	3.32(0.77)
	Total	3.28(0.60)
Emotional preparation	1. I try and talk to children for harmonious family relationships.	3.49(0.71)
	2. I try to solve emotional stress for a comfortable life in my old age.	3.51(0.70)
	3. I try to join meetings with friends for a comfortable life after my retirement.	3.39(0.79)
	4. I am preparing a hobby for a comfortable life after my retirement.	3.22(0.85)
	Total	3.40(0.58)
Total		3.30(0.55)

Table 4. Types of assets retention (N=280)

Variables		N	%
Guaranteed assets	Insurance	199	71.1
	National pension	200	71.4
	Private pension	109	38.9
	None	34	12.1
Financial assets	Bank deposits	144	40.7
	Bank savings	98	35.0
	Stocks · bonds · funds	99	35.4
	None	89	31.8
Real assets	Yes	97	34.6
	No	183	65.4

갖춘 상품으로 개발되었고, 판매 방법도 은행과 연계한 방카슈랑스 상품 등이 보편화 되었으며, 장기 저축 시 보장성과 함께 비과세 혜택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 등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상세한 조사가 요구된다.

## 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와 자산 보유 유형

### 1)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차이를 분석

Table 5. Retirement preparation according to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Variables	N	Retirement preparation						
		Economic preparation		Physical preparation		Emotional preparation		
Occupation	Specialized job	68	3.44	a	3.47	a	3.63	a
	Office job	135	3.25	a	3.27	b	3.43	b
	Service job	77	3.08	b	3.11	b	3.31	b
	F- value		7.52**		6.63**		7.16**	
Education	≤High school	85	3.04	b	3.23		3.37	
	University	166	3.29	ab	3.28		3.39	
	≥Graduate school	29	3.35	a	3.41		3.56	
	F- value		3.78*		1		1.23	
Monthly income	<KRW 3 million	53	2.95	c	3.05	b	3.18	b
	KRW 3-5 million	128	3.13	b	3.29	a	3.4	a
	>KRW 5 million	99	3.48	a	3.38	a	3.52	a
	F- value		11.48***		5.37**		5.76**	
Home ownership	Yes	196	3.3		3.35		3.44	
	No	84	3.02		3.11		3.32	
	t- value		2.97		3.11**		1.59**	
Debt	Yes	182	3.15		3.22		3.35	
	No	98	3.35		3.38		3.49	
	t- value		-2.14*		-2.00*		-1.9	
Economic background	Low	99	2.84	c	3.07	c	3.21	b
	Moderate	147	3.37	b	3.35	b	3.49	a
	High	34	3.67	a	3.58	a	3.6	a
	F- value		26.34***		11.78***		9.63***	
Life satisfaction	Low	67	2.76	c	2.97	c	3.2	c
	Moderate	141	3.25	b	3.3	b	3.39	b
	High	72	3.59	a	3.52	a	3.61	a
	F- value		26.29***		16.52***		9.27***	
Subjective health condition	Low	43	2.85	c	3.03	b	3.27	b
	Moderate	140	3.18	b	3.21	b	3.34	b
	High	197	3.45	a	3.48	a	3.56	a
	F- value		10.94***		10.53***		5.82***	

\*\*\*p<.001, \*\*p<.01, \*p<.05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경제적 준비는 직업(F=7.52, p<.01), 교육수준(F=3.78, p<.05), 월평균 소득(F=11.48, p<.001), 부채여부(t=-2.14, p<.05), 경제적 형편(F=26.34, p<.001), 생활 만족도(F=26.29, p<.001), 주관적 건강(F=10.94,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관리직과 사무·기술직이 서비스직에 비해 경제적 준비 점수는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에서 경제적 준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경제적 준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가 없는 경우, 경제적 형편이 여유롭고, 생활이 만족하고,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경제적 준비 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준비는 직업(F=6.63, p<.01), 월평균 소득(F=5.37, p<.01), 주거(t=3.11, p<.01), 부채여부(t=-2.00, p<.05), 경제적 형편(F=11.78, p<.001), 생활 만족도(F=16.52, p<.001), 주관적 건강(F=10.5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관리직,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 주거를 소유하고, 부채가 없으며, 생활에 만족한 집단, 경제적 형편이 여유롭고, 주관적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집단이 신체적 준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준비는 직업(F=7.16, p<.01), 월평균 소득(F=5.76, p<.001), 주거(t=1.59, p<.01), 경제적 형편(F=9.63, p<.001), 생활 만족도(F=9.27, p<.001), 주관적 건강(F=5.82,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관리직,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 주거를 소유하고, 경제적 형

편이 보통과 높다고 응답한 집단,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집단,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정서적 준비 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산보유 유형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산보유 유형의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보장자산의 경우 보험은 월평균 소득( $x^2=10.56$ , p<.01)과 주관적 건강( $x^2=6.04$ ,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의 집단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다고 응답한 집단 만이 상대적으로 보험을 보유한 경우가 많았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직업( $x^2=11.40$ , p<.01), 취업형태( $x^2=8.2$ , p<.01), 생활 만족도( $x^2=7.77$ , p<.01), 주관적 건강( $x^2=8.18$ ,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무·기술직이 다른 직종에 비해 국민연금을 보유한 경우가 많았고, 정규직인 경우, 그리고 생활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 상태가 높다고 응답한 집단이 국민연금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의 보유는 직업( $x^2=7.56$ , p<.01), 교육수준( $x^2=13.96$ , p<.01), 월평균 소득( $x^2=28.84$ , p<.001), 주거( $x^2=19.95$ , p<.001), 경제적 형편( $x^2=14.76$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직과 사무·기술직인 경우, 대학졸업 집단과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집단, 그리고 주거를 소유한 집단과 경제적 형편이 중간과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연금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보유정도가 높다는 Sung et al.(2009)의 연구

Table 6. Guarantee assets retention according to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Variables	N	Insurance				$x^2$	
		No (n=81)		Yes (n=199)			
		N	(%)	N	(%)		
Monthly income	<KRW 3 million	53	24	29.6	29	14.6	10.56**
	KRW 3-5 million	128	37	45.7	91	45.7	
	>KRW 5 million	99	20	24.7	79	39.7	
Subjective health condition	Low	43	17	21.0	26	13.1	6.04*
	Moderate	140	44	54.3	96	48.2	
	High	97	20	24.7	77	38.7	



Table 6. Continued

Variables	N	National pension				$\chi^2$	
		No (n=80)		Yes (n=200)			
		N	(%)	N	(%)		
Occupation	Specialized job	68	21	26.3	47	23.5	11.40**
	Office job	135	27	33.8	108	54.0	
	Service job	77	32	40.0	45	22.5	
Employment	Regular	223	55	68.8	168	84.0	8.2**
	Irregular	57	25	31.2	32	16.0	
Life satisfaction	Low	67	25	31.2	42	21.0	7.77**
	Moderate	141	43	53.8	98	50.4	
	High	72	12	15.0	60	25.6	
Subjective health condition	Low	43	19	23.8	24	12.0	8.18*
	Moderate	140	41	51.2	99	49.5	
	High	97	20	25.0	77	38.5	

  

Variables	N	Private pension				$\chi^2$	
		No(n=171)		Yes (n=103)			
		N	%	N	%		
Occupation	Specialized job	68	39	22.8	29	26.6	7.56*
	Office job	135	75	43.9	60	55.0	
	Service job	77	57	33.3	20	18.3	
Education	≤High school	85	65	38.0	20	18.3	13.96**
	University	166	87	50.9	79	72.5	
	≥Graduate school	29	19	11.1	10	9.2	
Monthly income	<KRW 3 million	53	44	25.7	9	8.3	28.84***
	KRW 3-5 million	128	86	50.3	42	38.5	
	>KRW 5 million	99	41	24.0	58	53.2	
Home ownership	Yes	196	103	60.2	93	85.3	19.95***
	No	84	68	39.8	16	14.7	
Economic background	Low	99	74	43.3	25	22.9	14.76*
	Moderate	147	83	48.5	64	58.7	
	High	34	14	8.2	2	18.3	

\*\*\*p&lt;.001, \*\*p&lt;.01, \*p&lt;.05

와 같은 결과를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보유액을 조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유액은 감소한다는 Sung et al.(2009)의 연구와 비교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금융자산이 보유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은행적금의 보유는 성별( $\chi^2=6.08$ ,  $p<0.05$ ), 월평균 소득( $\chi^2=6.39$ ,

$p<0.05$ ), 주거( $\chi^2=8.09$ ,  $p<0.01$ ), 경제적 형편( $\chi^2=11.00$ ,  $p<0.01$ ), 생활 만족도( $\chi^2=8.33$ ,  $p<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집단, 주거를 소유하고 있는 집단, 경제적 만족 수준이 보통과 높은 집단, 그리고 생활 만족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은행적금을 보유한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특성 중 유일하게 은행적금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이 은행적금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 은행적금은 다른 자산 유형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소액 자산으로도 접근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40-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인(혹은 공격적인) 자산보유 유형에 접근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은행예금 보유는 월평균 소득( $x^2=13.91$ ,  $p<0.01$ ), 주거( $x^2=4.74$ ,  $p<0.05$ ), 부채 여부( $x^2=9.52$ ,  $p<0.05$ ), 경제적 형편( $x^2=30.63$ ,  $p<0.001$ ), 생활 만족도( $x^2=7.21$ ,  $p<0.05$ ), 주관적 건강( $x^2=8.88$ ,  $p<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인 집단, 주거를 소유하고 있는 집단, 부채가 없는 집단, 경제적 형편, 생활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인 집단과 높다고 응답한 집단이 은행 예금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채권·펀드의 보유는 직업( $x^2=7.47$ ,  $p<0.05$ )과 교육수준( $x^2=7.48$ ,  $p<0.05$ ), 취업형태( $x^2=4.93$ ,  $p<0.05$ ), 월평균 소득( $x^2=18.54$ ,  $p<0.001$ ), 주거( $x^2=16.08$ ,  $p<0.001$ ), 경제적 형편( $x^2=38.87$ ,  $p<0.001$ ), 생활 만족도( $x^2=12.04$ ,  $p<0.001$ ), 주관적 건강( $x^2=15.43$ ,  $p<$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직과 사무·기술직에 종사하는 경우,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 정규적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 주거를 소유한 집단, 경제적 형편, 생활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인 집단과 높다고 응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주식·채권·펀드를 보유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실물자산의 보유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취업형태( $x^2=7.44$ ,  $p<0.01$ ), 월평균 소득( $x^2=13.27$ ,  $p<0.01$ ), 주거( $x^2=19.49$ ,  $p<0.001$ ), 경제적 형편( $x^2=18.33$ ,  $p<0.001$ ), 생활 만족도( $x^2=11.04$ ,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규적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300-5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인 집단, 주거를 소유한 집단, 그리고 경제적 형편과 생활 만족도는 보통인 집단과 높다고 응답한 집단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연령(Yuh et al. 2007)과 성별(Baeg 2008)이 부동산 자산 보유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 소득과 경제적 형편 등 경제적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able 7. Financial assets retention according to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Variables	N	Bank savings				$x^2$	
		No (n=182)		Yes(n=98)			
		N	%	N	%		
Gender	male	144	104	57.1	40	40.8	6.80*
	female	136	78	42.9	58	59.2	
Monthly income	<KRW 3 million	53	39	21.4	14	14.3	6.39*
	KRW 3-5 million	128	88	48.4	40	40.8	
	>KRW 5 million	99	55	30.2	44	44.9	
Housing ownership	Yes	196	117	64.3	79	80.6	8.09**
	No	84	65	35.7	19	19.4	
Economic background	Low	99	77	42.3	22	22.4	11.00**
	Moderate	147	85	46.7	62	63.3	
	High	34	20	11.0	14	14.3	
Life satisfaction	Low	67	53	29.1	14	14.3	8.33*
	Moderate	141	88	48.4	53	54.1	
	High	72	41	22.5	31	31.6	

Table 7. Continued

Variable	N	Bank deposits				$\chi^2$	
		No (n=166)		Yes (n=144)			
		N	%	N	%		
Monthly income	<KRW 3 million	53	43	25.9	10	8.8	13.91**
	KRW 3-5 million	128	73	44.0	55	48.2	
	>KRW 5 million	99	50	30.1	49	43.0	
Home ownership	Yes	196	108	65.1	88	77.2	4.74*
	No	84	58	34.9	26	22.8	
Debt	Yes	182	120	72.3	62	54.4	9.52**
	No	98	46	27.7	52	45.6	
Economic background	Low	99	77	46.4	22	19.3	30.63***
	Moderate	147	80	48.2	67	58.8	
	High	34	9	5.4	25	21.9	
Life Satisfaction	Low	67	49	29.5	18	15.8	7.21*
	Moderate	141	79	47.6	62	54.4	
	High	72	38	22.9	34	29.8	
Subjective health condition	Low	43	34	20.5	9	7.9	8.88*
	Moderate	140	75	45.2	65	57.0	
	High	97	57	34.3	40	35.1	

  

Variables	N	Stocks · bonds · funds				$\chi^2$	
		No (n=181)		Yes (n=99)			
		N	%	N	%		
Occupation	Specialized job	68	38	21.0	30	30.3	7.47*
	Office job	135	84	46.4	51	51.5	
	Service job	77	59	32.6	18	18.2	
Education	=<High school	85	65	35.9	20	20.2	7.48*
	University	166	99	54.7	67	67.7	
	>=Graduate school	29	17	9.4	12	12.1	
Employment	Regular	223	137	75.7	86	86.9	4.93*
	Irregular	57	44	24.3	13	13.1	
Monthly income	<KRW 3 million	53	45	24.9	8	8.1	18.54***
	KRW 3-5 million	128	86	47.5	42	42.4	
	>KRW 5 million	99	50	27.6	49	49.5	
Home ownership	Yes	196	112	61.9	84	84.8	16.08***
	No	84	69	38.1	15	15.2	
Economic background	Low	99	82	45.3	17	17.2	38.87***
	Moderate	147	89	49.2	58	58.6	
	High	34	10	5.5	24	24.2	
Life satisfaction	Low	67	54	29.8	13	13.1	12.04***
	Moderate	141	89	49.2	52	52.5	
	High	72	38	21.0	34	34.3	
Subjective health condition	Low	43	39	21.5	4	4.1	15.43***
	Moderate	140	86	47.5	54	54.5	
	High	97	56	30.9	41	41.4	

\*\*\*p&lt;.001, \*\*p&lt;.01, \*p&lt;.05

**Table 8.** Real estate retention according to socio- economic characteristics

Variable	N	Real estate				X <sup>2</sup>	
		No (n=183)		Yes (n=97)			
		N	%	N	%		
Employment	Regular	223	137	74.9	86	88.7	7.44**
	Irregular	57	46	25.1	11	11.3	
Monthly income	<KRW 3 million	53	46	25.1	7	7.2	13.27**
	KRW 3-5 million	128	77	42.1	51	52.6	
	>KRW 5 million	99	60	32.8	39	40.2	
Home ownership	Yes	196	112	61.2	84	86.6	19.49***
	No	84	71	38.8	13	13.4	
Economic background	Low	99	81	44.3	18	18.6	18.33***
	Moderate	147	83	45.4	64	66.0	
	High	34	19	10.4	15	15.5	
Life satisfaction	Low	67	55	30.1	12	12.4	11.04**
	Moderate	141	86	47.0	55	56.7	
	High	72	42	23.0	30	30.9	

\*\*\*p<.001, \*\*p<.01, \*p<.05

**Table 9.** A correlation analysis of retirement preparation and the types of assets retention

	Insurance	National pension	Private pension	Bank savings	Bank deposits	Stocks · bonds · funds	Real estate
Economic preparation	.259***	.185***	.270***	.282***	.284***	.277***	.265***
Physical preparation	.217***	.090	.140*	.122*	.168**	.171**	.145*
Emotional preparation	.140**	.105	.152*	.078	.151	.127	.102

\*\*\*p<.001, \*\*p<.01, \*p<.05

### 3. 노후준비와 자산보유 유형의 상관관계

노후준비와 자산보유 유형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노후준비의 세 영역인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와 자산보유 유형으로 분류된 보험, 국민연금, 개인연금, 은행적금, 은행예금, 주식·채권·펀드, 부동산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분석결과 경제적 준비와 자산보유 유형의 각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보험, 국민연금, 개인연금, 은행적금, 은행예금, 주식·채권·펀드, 부동산의 보유와는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준비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보유 유형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준비는 보험과 개인연금에서만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 노후준비 영역 중 경제적 준비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자산보유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정서적 준비 수준이 높은 사람은 보험과 개인연금 보유만이 높아 노후준비 영역에 따라 자산보유 유형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자산보유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자산보유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노후준비(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준비)의 상

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VIF 값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들의 VIF 값이 3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 회귀분석에서는 경제

적 형편( $\beta=-.260$ ,  $p<0.05$ ), 주거소유( $\beta=.175$ ,  $p<0.05$ ), 교육수준( $\beta=-.146$ ,  $p<0.05$ ), 주관적 건강상태( $\beta=-.142$ ,  $p<0.05$ ) 순으로 자산보유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경제적 형편이 여유로울수록, 주거를 소유하지 않고, 대학교 졸업의 교육 수준을 가지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산보유 정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Table 10. Results of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step 1 $\beta$	step 2 $\beta$
Gender(male)	Female	-.075(-.02)	-.068(-.018)
Age(fifties)	Forties	-.077(-.02)	-.008(-.002)
Occupation(service job)	Specialized job	.557(.125)	.356(.080)
	Office job	.451(.118)	.252(.066)
Education (=< high school)	University	<b>-.918(-.146*)</b>	<b>-.840(-.133*)</b>
	>=Graduate school	.013(.003)	-.167(.043)
N of children(>=3)	No	.072(.057)	.330(.027)
	1	.208(.044)	.287(.060)
	2	.279(.070)	.263(.066)
Religion(yes)	No	.035(.009)	-.013(-.003)
Employment(yes)	No	.017(.004)	.038(.008)
Monthly income (>KRW 5 million)	<KRW 3 million	-.935(-.191)	-.789(-.161*)
	KRW 3-5 million	-.470(-.122)	-.225(-.058)
Home ownership (yes)	No	<b>.733(.175**)</b>	<b>.655(.157**)</b>
Debt (yes)	No	-.161(.040)	-.054(-.014)
Dual-income household(yes)	No	-.095(-.025)	-.074(-.019)
Economic background (high)	Low	-1.043(-.260*)	-.585(-.146)
	Moderate	-.565(-.147)	-.404(-.105)
Life satisfaction(high)	Low	-.260(-.058)	.106(.024)
	Moderate	.007(.002)	.112(.029)
Subjective health condition(high)	Low	<b>-.758(-.142*)</b>	-.527(-.099)
	Moderate	.046(.012)	.099(.026)
Economic preparation			<b>.253(.490 ***)</b>
Physical preparation			-.074(-.115)
Emotional preparation			-.016(-.024)
Constant		<b>10.833***</b>	<b>7.001***</b>
F- value		<b>3.812***</b>	<b>5.904***</b>
R <sup>2</sup>		.264	.397
Adjusted R <sup>2</sup>		.195	.330

\*\*\*p<.001, \*\*p<.01, \*p<.05

사회경제적 변수는 자산보유 정도를 19.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후 준비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준비 영역을 투입한 2단계에서는 경제적 준비( $\beta = .490, p < 0.001$ ), 월평균 소득( $\beta = .161, p < 0.05$ ), 주거 소유( $\beta = .157, p < 0.01$ ), 교육수준( $\beta = .133, p < 0.05$ ) 순으로 자산보유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노후준비를 많이 할수록,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수록, 주거를 소유하지 않고,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질수록 자산보유 정도가 많은 것을 보여준다. 전체 설명력은 11.9%가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변수와 노후준비가 자산보유 정도를 39.7%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요약 및 결론

노후의 삶을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던 과거의 삶과는 달리, 오늘날은 노후생활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로, 자립적이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체계적인 노후준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로 볼 때 노년기라는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40-50대 직장인들의 노후준비와 자산보유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조사는 2011년 7월 11-17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40-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실자료를 제외한 28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조사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노후준비 정도는 3.30점(5점 만점)으로 보통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영역별로는 경제적 준비나 신체적 준비보다는 정서적 준비 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보유 유형은 보장자산의 경우 개인연금 보다 보험과 국민연금이, 금융자산의 경우는 은행예금 보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물자산인 부동산 보유는 금융자산인 은행적금과 주식·채권·펀드의 보유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둘째,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는 세 영역(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 모두

에서 공통적으로 월평균소득과 직업이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직업은 세 영역 모두에서 전문·관리직이 노후준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소득의 경우는 경제적 준비는 500만원 이상의 집단이 점수가 높은 반면, 신체적, 정서적 준비는 3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경제적 특성과 자산보유 유형과의 관계는 보장자산의 경우 보험은 300-500만원인 집단이, 개인연금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500만원 이상인 집단이 보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인 경우 은행적금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여성이 보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은행적금과 주식·채권·펀드는 500만원 이상인 집단이 보유한 경우가 많았으나, 은행예금 보유는 월평균소득이 300-500만원 집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선호하는 자산보유 유형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노후준비와 자산보유 유형과의 상관관계는 노후준비 영역에 따라 자산보유 유형은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적 준비 수준과 보장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모든 유형의 자산보유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서적 준비 수준과는 보장자산인 보험, 국민연금, 개인연금 보유만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섯째 자산보유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1단계의 사회경제적 변수 투입 결과 19.5%를 설명하지만 2단계 노후준비 영역을 투입한 경우는 39.7%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경제적 준비 수준이 높고, 월평균소득이 500만원 이상, 대학교 이상 졸업자, 주거를 소유하지 않은 집단이 자산보유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 대상자들의 노후준비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를 조금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40대-50대임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전 영역에서 노후준비 정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자산보유 유형을 볼 때 보장자산인 국민연금과 보험의 보유율은 70%를 상회하나, 그 외 개인연금과 금융자산, 실물자산의 보유

율은 국민연금, 보험의 절반 수준을 상회하는 35-40%정도로 나타나 개인연금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보유율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연금소득대체율은 42.1%에 불과하여(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10) 노후를 대비한 자산의 적정성 부분을 위해 자산 유형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조사 대상자들이 다양한 자산의 유형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신의 선택한 자산 유형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그래서 선택한 자산 유형이 자신의 가계재무 목표에 부합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 역량 실태를 분석한 Kim & Choe(2012)연구에 의하면 재무관리 역량 총점은 100점 만점 중 63.14점으로 저조한 편이며, 특히 지식역량 점수는 높은 반면 기능역량 점수가 낮아 실천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입증된 것도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설명해 준다. 넷째, 본 연구 결과 ‘소득’이 자산보유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소득’을 통제 변수로 하여 소득수준 등 경제적 형편이 비슷한 경우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자산보유의 적정성(adequacy)에 부합될 수 있는 지등을 설명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된다.

## References

- Ahn HJ, Kim HM, Anh JK, Kim YH(2009) Effects of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old age and perception of the successful aging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women. *J Korean Home Manag Assoc* 13(3), 137-155
- Bae MJ(2011) Effects of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nd preparing for their old age in middle age on the behavior for preparing their old age. *J Korean Home Manag Assoc* 16(1), 45-61
- Baeg HJ(2008) A study on the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in an aged society.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 Choo KC(2000) Empirical research on Korean middle-aged people's measure for their old age.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Jeong WY, Lee HS(2010) Financial structures of real estate and the factors influencing on it by subjective financial adequacy for later years among middle & old aged households. *Family Environment Research* 48(4), 1-12
- Kang SO, Ha KS(2013) Relations between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nd their preparations for the old age. *J Soc Digital Policy Manag* 11(12), 121-144
- Kang YJ(2005) A Study on Korean adults' planning for old age.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16(4), 159-174
- Kim JH, Choe HC(2012) The financial competency of Korean consumers. *J Consum Stud* 23(1), 229-252
- Kim DB, Jeong KH, Lee EJ(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previous preparation for successful aging life of elderly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life satisfaction. *Korean Soc Welf the Aged* 58, 1598-1649
- Kim JS, Choi SI(2010) The effects of lifestyle o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 Family Welf* 15(3), 97-119
- Kim MR(2013) Factors of successful aging and th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by the recognition of old age. *Korean J Soc Welf* 65(1), 227-245
- Ko HJ(2011) Factors determining the main caregiver's depression in long term care insurance.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Lee JH(2009)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aging and physical, financial &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focus on gender differences.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0(2), 275-289
- Ministry of Health & Welfare(2011) A research of citizens' perception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Seoul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Na HJ(2004) A Study on the role of leisure of the elderly for upgrading of the quality of life. *Korean Gerontological Soc* 24(1), 53-70
- New Daily(2014) Household debt reached a threshold, it is required to check for low-income families finance. Available from <http://biz.newdaily.co.kr> [cited 2014 June 25]
- Park CJ(2008) Types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aging by age. *J Soc Secur* 24(4), 139-166
-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2007): Household income survey for retirement preparation. Available from <http://www.seri.org>[cited 2014 April 16]
-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2010): Impacts of retiring baby boomers and its countermeasures. Available from <http://www.seri.org>[cited 2014 March 15]
- Shin ES(2002) Study on unmarried women's understanding on and provision for their old age : Focusing on female seoulite high attainment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tatistics Korea(2009): Statistics on financial preparation  
for the aged.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cited  
2014 May 06]  
Statistics Korea(2013): Statistics on the aged.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cited 2014 May 06]

Sung YA, Joo SH, Choe HC(2009) Individual investors'  
mutual fund investment behavior. J Consumer Stud  
20(4), 215-238  
Yuh YK, Joung SH, Moon SJ(2007)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Korean households. J Consum Culture  
Assoc 10(3), 129-155